



배포일자 : 2026년 7월 28일(화)

##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 지도사 법적 지위, 법정교육 운영 근거, 지원사업 예산 등 주요 현안 논의
- 오세희 의원 “경영·기술지도사의 현장 역할 강화 위한 제도개선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과 김경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지도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영·기술지도사 제도의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기술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진단하고, 기술혁신과 사업전환, 판로와 마케팅, 디지털전환 등을 지원하며 현장의 문제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도사 제도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도서비스의 품질 향상, 자격제도의 공신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도사 법정교육의 운영주체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시, ▲무자격자의 지도사 사칭 및 무자격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체계 마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예산 증액, ▲소상공인 맞춤형 ESG경영 지원사업 신설, ▲지도사회 지회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소상공인 경영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을 건의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AI와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영애로를 진단하고 사업전환과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도사들이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도법인 설립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하반기 법안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별첨 : 1.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포스터  
2.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현장사진

별첨 : 1.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포스터

**더불어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2026년 7월 28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